홍콩자키클럽 시리즈
무굴 황실 대표 보물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남아시아를 지배한 무굴 왕조(1526~1857)는 1560년대부터 16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로 손꼽히며 말 그대로 찬란한 “황금기”를 누렸다. 특히 이 시기는 악바르 대제(재위: 1556~1605), 아들 자한기르(재위: 1605~1627), 손자 샤 자한(재위: 1628~1658)이라는 삼대의 치세가 이어졌다. 제각기 독보적인 예술 후원자였던 세 황제의 궁정은 남아시아, 중국, 이란, 유럽 등지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예술의 용광로였다. 본 전시는 각양각색의 풍부한 전통이 무굴 제국 궁궐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만개하였는지 한 편의 예술사극처럼 펼쳐놓았다.

무굴은 이슬람교를 믿고, 페르시아어를 쓰던 왕조다. 무굴 왕조를 세운 바부르(재위: 1526~1530)는 중앙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재위: 1370~1405)와 몽골제국의 창시자 칭기즈 칸(재위: 1206~1227)의 후손이었다. 바부르의 왕조가 페르시아어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된 이유이다.

이번 전시는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A)과 홍콩고궁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홍콩자키클럽(홍콩 마사회) 자선신탁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맺어진 소중한 열매이다. V&A 소장품을 중심으로 쿠웨이트와 영국 등 세계 여러 기관에서 대여한 회화, 보석, 건축 부재, 무기, 직물, 도자기 등 100여 점의 유물을 알차게 준비하였다. 홍콩고궁박물관 소장품과 더불어 크리스 홀 컬렉션과 멍디에쉬안(夢蝶軒) 컬렉션에서 가져온 엄선된 작품도 함께 전시의 깊이를 더한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소개 (Victoria and Albert Museum, V&A)

V&A는 창조의 힘을 믿는다. 우리를 웃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며 세상을 바꾸는 힘. 이 힘을 찬미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 박물관은 전시와 행사, 교육 과정, 디지털 프로그램을 열고, 280만 점에 이르는 소장품과 함께 신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존과 연구,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몰두한다. V&A가 풀어내는 이야기는 창조의 힘을 빌려 반만년 간 작성한 인간의 역사이다. 오늘의 창작자와 내일의 혁신가에게 전한 씨앗이 전 세계에서 문화의 꽃송이로 피어날 그날을 기다린다.

타지마할: 사랑으로 빚은 찬란한 기념비

무굴 왕조를 대표하는 황제이자 예술 후원자였던 샤 자한(재위: 1628~1658)의 업적은 셀 수도 없다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눈부신 보석은 타지마할이었다. 사랑해 마지않았던 황후 뭄타즈 마할(593~1631)을 추모하며 당시 무굴의 수도였던 아그라에 세운 영묘이다. 황후가 열네 번째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1631년, 슬픔에 사로잡힌 황제가 비통한 마음을 담아 지은 이 영묘는 무굴의 대표 건축으로 불멸하게 되었다. 타지마할을 짓기 위해 샤 자한은 당대 최고의 장인을 불러 모았다. 17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도 하는 우스타드 아흐마드 라호리(1580?~1649)가 총설계를 맡았고, 이란 출신 서예가 아마나트 칸(1570~1645)이 서체를 디자인한 쿠란 구절로 정면을 크게 장식하였다. 그 외에도 수천 명의 장인이 모여 건축과 장식에 손길을 다한 끝에 뭄타즈 마할이 세상을 떠난 지 열두 해째 되던 해에 정식으로 완공되었다. 인도의 시성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1861~1941)는 타지마할을 두고 "시간의 뺨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라고 노래했다. 그 눈물방울은 지금도 여전히 눈부시게 반짝이며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새 시대를 설계하다 (제1부):

악바르(재위: 1556~1605)

무굴 왕조를 세운 인물은 초대 황제 바부르(1483~1530)이지만,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한 사람은 손자인 악바르 대제였다. 겨우 열 네 살에 왕위에 올라 초기 격동의 시대를 헤치고, 정복과 외교를 병행하며 빠르게 영토를 넓혀갔다. 악바르는 주로 힌두교도였던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을 아우르기 위하여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고, 열린 통치로 제국은 안정될 수 있었다. 혁신적인 종교 정책이 다양한 제도 개혁과 만나자, 번영이 시작되었다.

예술 후원으로 당대에 손꼽히던 인물답게 궁정 내 여러 작업장을 설치하였다. 그곳에서 남아시아와 이란 출신의 무슬림과 힌두교 예술가가 협업의 장을 열고, 궁정에서 사용할 각종 예술품을 제작하였다. 중국과 유럽의 문화 요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다양한 전통의 색이 함께 섞여 만나본 적 없는 새로움으로 가득한 무굴 왕조만의 예술 양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국의 시작

악바르 대제는 아그라, 델리, 라호르 등 제국의 중심 도시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궁전도 새로 지었다. 영토를 넓혀가면서 황실은 다양한 지역 전통 산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573년 악바르가 정복한 인도 서부의 부유한 지역 구자라트는 악바르 치세 내내 나전과 상아를 재료로 한 독특한 수공예품으로 번성하였다.

융합의 산실: 궁정 작업장

통찰력 있는 군주였던 악바르 대제는 궁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예술품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작업장을 세웠다. 필사본 제작소인 "서책의 집"과 금세공 작업장 등에서 솜씨 좋은 예술가와 장인이 협업하며 작품을 만들어냈다. 무굴 궁정에서는 페르시아어가 행정 언어였기 때문에, 이란 출신의 뛰어난 화가, 서예가, 직조공, 건축가가 작업장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현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장인과는 또 다른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서로의 기법과 미감을 교류하며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다. 궁정에서 사용하려 수입한 중국 자기도 황실의 사랑을 받았다. 1580년대 포르투갈령 고아에서 예수회 선교단이 파테푸르(무굴의 또 다른 수도)에 도착한 이래 유럽 예술 요소도 무굴 예술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궁정 작업장의 손길이 머물러 독창적인 무굴 예술이 탄생하였다.

세계를 수집하다(제2부):

자한기르(재위: 1605~1627)

1605년 악바르 대제의 서거 후 그의 아들 살림이 황위에 올랐다. 자한기르는 페르시아어로 "세계를 거머쥔 자"라는 뜻으로 황제가 스스로 고른 칭호이다. 새로 즉위한 황제는 부강하고 안정된 제국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처럼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였다. 이런 황제를 위해 궁정의 귀족들은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진귀하고 정교한 물품을 수집하였다. 중국 서북부 호탄에서 온 희귀한 연옥은 황제의 작업장에서 아름다운 그릇과 공예품으로 탈바꿈했다.

황제는 일상과 관심사를 직접 기록한 일기를 남겼다. 사냥을 하고 경치를 감상하며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눈길을 고스란히 담았다. 광대한 제국 곳곳을 순행할 때는 궁정 예술가와 장인을 늘 곁에 두었다. 자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탐구했던 황제의 취향은 무굴 예술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궁정 예술가들에게 기록하게 한 동물과 식물의 모습은 연옥, 금, 은 등 다양한 재료로 그 형태를 갖추고 무굴 예술로 되살아났다.

세계의 보고(寶庫)

자한기르 황제의 보물창고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과 금, 화려한 장신구와 공예품, 곱게 빚은 자기와 궁중 의례용 각종 사치품으로 가득하였다. 황제는 정교한 예복과 눈부신 장신구, 보석으로 아로새긴 무기를 착용했다. 황궁의 벽도 금실로 수놓은 직물로 장식하여 반짝였다. 황홀하게 빛나는 자한기르 궁정을 처음 본 잉글랜드 초대 무굴 제국 주재 대사였던 토머스 로 경(1580~1644)은 "세계의 보고"라는 말로 첫인상을 표현했다.

여행과 자연이 피워낸 예술

자한기르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빈번한 순행이 눈에 띈다. 정원과 신축 건물을 시찰한다거나 사냥하러 아니면 단순히 피한을 목적으로 자주 라호르, 아그라, 델리 등 제국의 주요 도시로 향했다. 이 여정은 황실 가족과 시종, 관료뿐만 아니라 궁정 최고 예술가와 장인도 함께 떠났다. 여행 중에 제작한 예술품은 무굴 궁정 예술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었다. 황제가 세심하게 관찰한 기록을 담거나 동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유럽에서 온 식물도감을 본뜨기도 하였다. 정교하게 그린 꽃과 동물로 제작한 모티프는 이후 궁중 필사본의 테두리, 황실 건축물, 의식용 무기 장식 등 다양한 예술에 응용되었다.

지상 낙원을 그리다(제3부):

샤 자한(재위: 1628~1658)

"세상의 제왕"을 뜻하는 "샤 자한"은 1627년 아버지 자한기르의 사후 황위에 올랐다. 이때 무굴 궁정에는 막대한 부가 쌓여 있어 보석을 촘촘히 박은 화려한 예술품을 아낌없이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정교한 옥(玉)공예품은 훗날 중국 청나라 건륭제(재위 1735~1795)의 수장고에 소중히 보관되기도 하였다. 그런 황제를 무엇보다 사로잡은 것은 건축이었다. 샤 자한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단연 손꼽히는 타지마할은 사랑해 마지않던 황후 뭄타즈 마할(1593~1631)을 추모하며 아그라에 조성한 묘역이다.

샤 자한이 꿈꾸던 무굴 궁정 예술은 꽃으로 피어난 부귀영화였다. 유럽에서 온 식물도감에서 영감을 받은 무굴 궁정 화가들은 장미, 백합, 튤립, 붓꽃을 중심으로 다양한 꽃을 살아 있는 듯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 꽃망울과 꽃송이는 타지마할의 석재뿐만 아니라 보석, 직물, 화첩의 가장자리를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피어나, 샤 자한이 다스리던 무굴 왕조는 아름다움과 영원이 머무르는 낙원의 정원이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델리의 샤 자한 궁전 벽에 페르시아어로 새긴 시구도 그 열망 노래한다. "만일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일지니."

지상에 세운 낙원

샤 자한의 치세에 타지마할을 수놓은 꽃장식은 다른 무굴 궁정 예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문 공방 예술가들은 전통 문양 대신 꽃을 본뜬 무늬로 새로운 궁정 양식을 선보였다. 그 안에서 꽃은 시들지도, 병들지도, 굶주리지도, 궁핍하지도 않은 이상향의 상징으로 오롯이 피어났다. 한 송이 한 송이 피워낸 꽃송이 사이로 샤 자한의 무굴 시대는 낙원에 어울리는 정원이라는 선언도 함께 새겨져 있다.

문화의 교류, 예술의 울림

샤 자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무굴 제국의 옥 장인들은 세계 곳곳의 문양을 빌려 작품을 만들었다. 중국의 호리병, 유럽의 식물 모티프, 중앙아시아 동물 형상 등이 무굴의 전통과 어우러지면서 점점 독특하게 다듬어진 무굴 양식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중국 청대의 대수장 건륭제(재위: 1736~1795) 역시 섬세하고 우아한 무굴 옥공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청나라 장인들이 모방작을 만들기도 하였다.

무굴의 유산

황제가 중병에 걸리면서 샤 자한의 치세는 1658년 갑자기 막을 내렸다. 이를 틈 타 셋째 아들 아우랑제브(재위: 1658~1707)가 제위에 오르며 무굴 제국은 다시 한번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으나, 오히려 제국의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국의 "황금기"는 분명 저물었으나, 무굴 예술의 찬란함이 바랜 것은 아니었다. 무굴 왕조가 쇠퇴하자 궁정 예술가와 장인들이 다른 궁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굴 양식의 기법과 문양은 새로운 지역의 전통과 어우러지며 계승되었다. 오늘날에도 샤 자한 시기 건축 양식과 꽃장식은 남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무굴의 유산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도도 퍼져나갔다. 그 예로, 무굴 제국의 황제처럼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인물을 영어로 "모굴(mogul)"이라고 부른다. 제국은 저물었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